

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

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목하고 계십니다.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느냐가 관건입니다. 금식은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궁휼이나 사람들 의 인정을 받기 위한 선전 도구도 아닙니다. 하나님은 잘못된 금식을 보시고, “나와 무슨 상관이냐”며 책망하셨습니다(슥 7:5). 예수님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 내 의 를 드러내려는 유혹을 경계하십니다.

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.

이방인의 기도는 하나님과 무관하며 자기 중심적입니다. 그들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얻으려 합니다.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계획과 생각과 때 등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.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의 온전한 본을 보이셨습니다. “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”(마 26:39).

하나님과의 관계는 삶으로 연결됩니다.

“기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너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”(마 6:14, 《메시지》성경). 본문은 주기도문에 붙은 사족이나 부연이 아니라 기도의 정의(definition)로서 결론에 해당합니다.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기도하게 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. ‘용서’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의 강력한 표지입니다. ‘용서’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특정한 사안이 아닙니다.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순종할 때, 자연히 드러나게 되는 삶의 변화입니다.

나는 기도와 연결된 삶을
살고 있습니까?

- ① 나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까,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까?
- ② 참 기도자로서의 표지가 삶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까?